

대백제전, 17일 역사적 개막 팡파르, 한달간 대장정 돌입

- 17일 공식 개막식 이어 18일 일반 개장..
- 이 대통령 "백제인 진취적 기상이 국가발전 원동력" 강조할 듯

“다시 깨어나라. 대백제의 혼불이여!”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을 주제로 한 역사문화축제 2010 세계대백제전이 9월 17일 오후 역사적인 막을 열며 장장 한 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주한외교 사절, 해외 교류단체장, 3부 요인들과 전국 시도 인사, 정재계인사 및 지역인사 등 초청인사들과 주민 등 약 1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화단지 백제왕궁 특설무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행사 축사를 통해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을 통한 찬란한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해상교류를 통해 얻어진 백제인의 진취적인 기상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대통령은 공식 개막식에 이어 거대하고도 웅장한 옛 고대국가 제천(祭天) 의식을 본뜬, 이날 개막식의 최대 하이라이트 「사비왕궁 개문의식」을 참관한 뒤 17년만에 완공된 사비왕궁을 돌아보고 기념식수도 하였다.

사비왕궁 개문의식의 기본 컨셉은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이 총감독을 맡아 백제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개의 북을 맞추들이하여 옛 백제를 깨우고, 700년 대 백제의 꿈이 되살아나는 역사적인 순간, 참석자들 모두가 깨어나는 백제를 향해 ‘백제맞이’에 나선다는 것이 큰 줄기. 연출방향은 대백제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제사형태를 빌리는 새로운 시도 곧 ‘파격’, 백제 대서사의 ‘개발’, 그리고 재현해낸 왕궁의 ‘위엄’을 드러냈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3시 백제왕궁 광장과 특설무대에서 내빈 입장과 개회고지로 시작해 무대 좌측에 자리한 금동대향로 성화대에 텔런트 정준호씨가 올라 백제혼불을 안치하면서 제향의 은은한 향기와 함께 장중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천관 왕기철, 신녀 오정해씨, 아동 송소희 양이 중심이 돼 무용수 123명이 사물놀이패와 함께 부활의 대합창 퍼포먼스로 절정의 분위기에 올랐다.

김명곤 총감독은 “백제유산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몫을 할 것이란 자부심을 느끼며 그 힘을 재조명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식 개막식에 이어 18일부터 일반개장에 들어가는 2010세계대백제전은 충남 부여군과 공주시 일원 9개 행사존(Zone)에서 22개의 대표프로그램을 비롯해 시·군 프로그램 등 모두 90여개의 이벤트가 한 달 동안 무대를 달궂가며 20여개국 260만여명의 관람객들을 매료시키게 된다.

충남도, 전국 최대규모 야생동물구조센터 개소



충남도는 9월 9일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총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내 11,980㎡의 부지에 올해 6월 준공한 후 시험운영을 해왔다.

충남도와의 협약에 따라 공주대학교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교수진, 전문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과 관리동, 조류동, 포유류동, 재활훈련장 등의 건축물,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구조센터는 전국 최고 인력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앞으로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와 재활훈련은 물론,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치료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배양하여 보급하고,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의 증식 복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구조센터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역할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2011 예산편성에 도민의 목소리 담는다

충남도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개행정 구현과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민의 의견을 반영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를 위하여 지난 7. 16부터 8. 4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도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의견수렴과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등 도민을 상대로 한 전화 및 우편 설문을 병행하였다.

의견수렴 분석결과 도민 2,277명(우편 210, 전화 2,000, 인터넷 67)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도 1 순위로 예산투자 할 분야는 복지환경분야(28.4%), 농수산분야(22.7%)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우선투자할 사업으로 농수산분야는 농수산물유통체계 개선분야(35.3%),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보급확대분야(23.6%)를, 교육분야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선호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 실시방안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실시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복지분야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분야(40.0%)를, 문화예술체육분야는 충남 문화길 조성 등 지역특화 관광지 개발분야(51.3%)를, 경제산업분야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분야(38.6%), 건설교통안전분야는 안전한 도로관리 및 휴식공간 조성분야(29.3%)를 선호하였다.

2011년 예산편성시 증액되어야 할 분야는 사회복지분야(23.5%), 농림해양수산분야(18.1%), 산업·중소기업분야(12.6%)이고, 감액되어야 할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18.8%), 문화예술체육분야(15.9%) 국토·지역개발분야(13.0%)로 나타났다.

제안사업은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애용” 등 185건이 접수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교통분야(50.8%), 농림수산분야(16.2%), 복지환경분야(14.6%) 순으로 나타났다.

금번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도민들은 복지환경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안사업은 실국별로 종합 검토하여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시행사업은 시군에 통보하고, 설문결과와 제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결과를 연말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도정의 핵심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예산편성시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011년도에는 관련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등 이를 법제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 콘도미니엄 웅장한 위용 드러내

— 백제문화단지에 콘도미니엄 개관식 개최



지난해 1월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의 포문을 열었던 롯데부여 리조트 콘도미니엄이 20개월 여간의 단장을 마무리하고 9월 2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안희정 충남지사, 유병기 도의회의장, 유병돈 도의원, 이진삼 국회의원,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이용우 부여군수, 신동빈 롯데그룹부회장 및 임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2일 개관한 롯데 콘도미니엄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화단지」내에 소재하고 있고, 322실의 호텔급 객실에 컨벤션, 세미나, 아쿠아, 사우나시설 등 부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숙박과 휴양,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활용으로 충분하다.

또, 제막식이 펼쳐진 원형 한옥회랑은 둘레 117m, 면적 541㎡로 지난 8월 사단법인 한국기

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초·최고 기록을 인증 받은바 있으며 공사비만 17억원이 투입된 거작으로 현재 기네스북 등재 추진 중이다.

한편, 롯데 콘도미니엄은 2007년 12월 롯데와 협약체결이후 문화재청,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골프장도 착수에 들어가는 등 사업계획에 따른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 대백제전이 끝나는 오는 10월말이면 백제테마정원과 아울렛이, 내년에는 골프빌리지, 스파빌리지 등 나머지 민자시설도 본격적인 삽질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업기간 중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다. 2013년까지 총 3,117억원이 투입되는 롯데부여리조트는 8천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 5백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 된다.

한편, 롯데 콘도미니엄의 준공으로 그동안 낙후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부여가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그룹 투자유치 인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우수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촉매제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백제문화 세계화의 중심지이자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서산 간월호관광도로' 개설

- 해미~간월호~서산웰빙특구~기업도시 연결 노선 중 12km 2차로 개설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서 인지면을 잇는 '간월호 관광도로'가 본격 추진된다.

8월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의 핵심사업인 '간월호 관광도로' 건설이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금년도 4월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 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을 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최종 변경승인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월호관광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당초 노선인 서산시 고북면에서 간월호 주변

을 순회하여 부석면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주요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해미~서산웰빙특구~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된다.

이에 간월호 관광도로는 총사업비 427억원(국비 384억원, 지방비 43억원)을 들여 「서산시 해미면~인지면간」 12km, 2차로로 건설되며 2014년 완공예정이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이후 급증하는 도내 관광객 유치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간월호와 해미읍성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 및 간월호 철새도래지, 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개발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금년 중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아 간월호 관광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오는 2012년부터는 토지보상 등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가려 다소 침체되었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금번 간월호 관광도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이름은 "내포신도시"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명칭 확정



충남도는 8월 2일 충남 홍성·예산 일원에 조성되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명칭이 “내포(內浦)신도시”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명칭은 지난 2006년 실시한 명칭 공모에서 전국에서 총 75명 153건이 응모되었으나 갈등 발생으로 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명칭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도청 이전신도시”라는 명칭만으로는 다양한 특징과 매력을 가진 신도시를 알리고 지역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올해 초 신도시 명칭을 선정하기로 결정한 뒤 충남도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칭공모 평가위원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의 명칭이 결정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명칭의 탄생은 충남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으로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자 기점으로 기한 내에 인구 10만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전을 희망하는 유관·기관 단체의 조기 이전을 당부하며 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 상정된 내포, 서해, 홍예 3개(안) 가운데 위원 9인 중 6인이 “내포”라는 명칭을 선호하였으며 “내포는 내포문화권의 중심이라는 역사적 지리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고 황해권 시대의 선도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명칭이 “내포신도시”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용지분양, 기관·단체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한 모든 홍보자료에 “내포신도시”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대내외적인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지역마케팅 전략에도 적극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 중심 논산 만들기 위해 한 자리에

— 충발연, 시군 순회 워크숍 일환으로 소통의 장 마련



9월 17일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논산시(시장 황명선)와 공동으로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사람 중심 논산 만들기』라는 주제로 외부전문가 및 교수, 논산시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시청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건양대학교 임양빈 교수의 “사람중심 도시 실현을 위한 논산시의 과제와 주요 전략”, 한밭대학교 김명수 교수의 “친환경적인 걷고 싶은 도시환경조성 활성화 방안”, 충남대학교 이정수 교수의 “디자인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충발연 박진도 원장 주재로 광주대학교 김항집 교수, 한밭대학교 임윤택 교수, 토지주택연구소 강명수 박사, 공주대학교 김경석 교수, 충발연 공공디자인센터장 이충훈 연구위원, 대전발전연구원 이형복 연구위원의 지정토론과 각 실·과·소장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가지의 경관정비, 주차장 및 도심공원 확충, 자전거도로 설치, 차도보

다는 인도 중심의 도로를 설치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논산을 만들어 나갈 것”을 피력하였다.

또한 박진도 총발원원장은 “결국 사람 중심의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사람을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모든 짐을 떠안으려 하지 말고, 주민·시민사회·기업 등을 어떻게 참여시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로드맵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략과 아이디어 등은 2011년도 논산의 시책구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발전연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학술지식정보 공동활용 협정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CDI)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소장 이남영, KSDC)는 8월 26일 오전 11시 충발연에서 양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 및 지식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충발연은 KSDC의 학술정보자료와 다양한 연구분석기능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고, 충발연의 축적된 연구성과물 중 공개 가능한 양적 자료(Raw Data, 설문지 등)를 KSDC에 기탁하여 영구 보존·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연구원이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와 분석기능을 웹상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방대한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 양 기관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이번 협정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혁신지자체의 지역발전전략 교훈 삼아야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제기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를 중심으로 한 ‘대전충남지역경제연구회’는 8월 3일 오후3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육근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그리고 지역경제연구회원과 충발연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일본 혁신지자체의 경험과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일본 지방자치 및 지역정책의 저명인사 2명을 초청, 일본 지자체의 경제정책과 정책결정 시스템, 그리고 주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다.

호보 타케히코(67·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일본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바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었지만, 고도경제성장정책에 따른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복지는 오히려 소홀해졌다. “면서 특히 “지자체의 기업유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세정책과 선행투자에 비해 그 기업의 이익이 본사로 흘러들어가거나 지역민의 고용 창출 미흡 등 지역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타지역으로부터 유치하는 기업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지역의 자생적 경제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지역의 각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체계적이고 신뢰성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이행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케가미 히로미치(68·타마지자체 문제연구소) 소장은 “일본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지역민의 의사와 책임에 입각한 ‘주민 자치’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단체 자치’에 있지만,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의 통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라면서 “일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직접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단체장과 지역민과의 대화, 편지·투고, 전문가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주민참여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행정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는 모든 지역민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알리는 방법 또한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지역민 또한 지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학습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상호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취임



충남발전연구원은 8월 2일 오전11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7대 박진도 원장(57)의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는 충발연 정동기 사무처장, 이인배 연구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과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신임 박 원장은 “민선5기 충청남도 도정의 목표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

기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충남발전연구원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온 정성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임 박 원장은 1952년 강원도 삼척 출생으로 30여년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동경대 객원연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류교수, 영국 뉴캐슬대학 초빙교수 등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과 대통령자문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발전 및 농어업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능력과 업적을 남겼다.

이외에도 지역재단 상임이사, 한국농업정책학회장, 한국사회경제학회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다양한 대외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박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국가 GIS 사업에 따른 충남 시·군의 대응방안 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은 7월 1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 GIS 정책에 따른 충남 시·군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 3차원 GIS(지리정보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GIS 사업과 연계한 충남 시·군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남도 지적과 김덕만 지리정보담당은 “충남도는 도민 서비스 질 향상 및 U-충남 실현을 위한 지리정보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3차원 GIS 시스템을 지난해 말까지 구축”했으나, “시스템의 대중화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연구원 신동빈 연구위원은 “국가 GIS 사업은 GIS 기반조성을 위한 데이터 구축, 확산, 연계통합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4조 4,057억원을 투입하여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추진”중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나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옥진아 GIS팀장도 “지자체 간 GIS 정보 공유와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표준화 및 관련 규정의 미비로 통합적 3차원 GIS 구축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GIS 구축에 대한 동향과 기술개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도 높은 3차원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유비쿼터스 및 스마트폰 환경에 대응한 모바일과 웹 기반 쌍방향 서비스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책임연구원은 “지자체는 3차원 GIS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차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충남에서는 도와 시군 간의 효율적 연계방안 마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3차원 GIS 시스템 운영 정보화 트렌드에 맞춘 3차원 모바일 서비스 개발 GIS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등을 강조했다.

